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도 온라인으로

내달 7일 개막...나홀간 DJ센터서 유튜브 생중계
UN 인권최고대표·유네스코 사무총장 기조발제
해외 11개 국내 32개 협력기관, 35개 프로그램

광주시가 올해 UN과 공동주최기로 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열린다.

광주시는 23일 "제18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기억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현장 청중 없이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열리며, TV녹화방송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인 누구나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포럼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광주시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 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해 왔다.

윤복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인사도 업그레이드됐다. 국내에서는 이용섭 시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

참석하고, 해외에서는 미켈 바젤렛 UN 인권최고대표, 오드레 아즐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에밀리아 사이즈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과 마커스 뢰니히 독일 뉘른베르크시장, 마



'현장 경청의 날' 행사 23일 오전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열린 제18회 현장 경청의 날 행사에 이용섭 시장, 임택 동구청장, 이홍일 시의원, 시민권익위원 등이 '경로당 공공와이파이(wi-fi) 설치'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청취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르테 뫼스 페르세 노르웨이 베르겐 시장 등 시장급 인사 14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포럼은 국내 32개, 해외 11개 협력기관이 참여,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공식 행사,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킹회의, 인권교육회의, 연계행사 등 7개 분야 35개가 운영될 계획이다.

개회식은 이용섭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UN 인권최고대표가 기조발제를 한다.

두 기관의 기조발제는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권도시 조성 전략, 인권도시 운동에 대한 공동로드맵, 지방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 등이 논의되고, 주제회의에서는 노인, 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민, 환경, 사회적경제, 안전도시 등 8개 주제별로 지역 시민단체들이 직접 회의를 기획·운영해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게 된다. /한동주 기자

광주 아동특별돌봄비 지원...1인당 20만원 재난지원금 중학생 제외...정부 지원 중복

광주시가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양육 기구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이하(2008년 1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출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현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지원 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7만6000여 명이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입소 아동은 자선형성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한다.

시교육청 지원 대상인 취학아동(초1~6학년) 8만9000여 명은 스톨뱅크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 일괄 지급

할 예정이며, 2020년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9월부터 아동수당과 특별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추경 예산안이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들만 지원하기로 돼 있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별도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전달 4차 추경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중학교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원키로 하자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중학생은 제외시켰다.

/김도기 기자

광주 확진자 1명 발생...총 488명

'격리 해제 전 양성'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 누적 확진자가 488명으로 늘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이다. 488번 환자로 분류돼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488번 환자는 성림침례교회 관련 확진자 455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이다. /한동주 기자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추가 동선·접촉자는 없다.

이로써 지난 22일에만 일주일여 만에 지역사회 감염에 의한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이들 모두 격리 중 확진 관정을 받아 추가 감염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시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광주 488명, 전남 167명이다. /한동주 기자

'광주시 패싱'에 시의회 빨났다

코로나 민생안정대책·시도통합 제안 '일방통행' 불만고조

광주시의회가 단단히 빨이 났다. 최근 광주시가 시·도통합론과 민생안정대책 등을 내놓으면 시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어 일방적으로 진행, '패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9월에 걸쳐 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원 규모와 대상 결정과정에서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배제한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전체 민생안정지원금 2003억원 중 추경경을 통해 의회에서 승인한 300여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1차 지원 때 사전 협의 없

이 지원금을 책정했다는 의회 지적을 받고 1000억원 가까이 대규모 지원이 있었던 2차 때는 의회와 협의를 했다.

하지만, 이후 3~9차까지 의회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의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A의원은 "1차 민생안정대책 이후 사전 협의가 없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2차 때 협의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패싱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B의원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민생안정대책을 신문에서 봐야 하느냐"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서로 논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광주·전남 통합론과 관련해서도 시의회는 사전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시장은 며칠 뒤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만나 사전 협의가 없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양측은 가시지 않고 있다.

C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중대한 일을 제안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면서 "통합에 대의 동의하지만, 사전 협의가 없다면 신속으로 공표 않는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 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의원들의 불만이 이해가 간다"면서 "앞으로는 사전 논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백운고기도 마지막 상판 철거 31년만 도로기능 상실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 백운고가차도의 마지막 상판이 해체되면서 도로의 기능이 31년만에 완전히 상실됐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23일 백운고가차도 상부 마지막 구조물을 이날 오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백운고가차도는 도로를 지탱하고 있었던 기둥만 남아있으며 장비 등을 동원해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오백 등 잔재를 해체 작업에 돌입하며 11월께 철거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철거가 완료된 뒤에는 백운광장에서 주월교차로 구간이 왕복 11차로까지 확장돼 교통혼잡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드림닭 슷불구이 전문 닭꿈

www.chickendream.kr
T. 062-571-6007

인기메뉴 닭숯불구이

연말연시 단체예약환영 / 1~2층 홀&룸 120석 완비 / 넓은 주차장

점심메뉴(am 11~pm 2)

- ※ 닭장떡국 7,000원
- ※ 닭곰탕 7,000원
- ※ 닭계장 7,000원
- ※ 닭죽 7,000원

광주시 북구 하서로 241번길 41 (양산동 367-12) 닭꿈